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조 근 주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신 종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 전공

조 근 주

교육학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_____ 김 동 일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선 영 _____ (인)

위 원 _____ 신 종 호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가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변인들의 잠재평균 및 구조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한 결과, 감사 성향과 표현 모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감사 표현이 성향에 비해 다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집단 분석을 통하여 변인들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남녀 집단의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학생 여학생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들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잠재평균 차이검증을 시행한 결과, 여학생의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의 잠재평균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구체적 기제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변인들의 관계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을 밝혔다. 본 결과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만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성향 및 표현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학 번 : 2019-24876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7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 9

Ⅱ. 이론적 배경 ····· 11
1. 감사 성향 ····· 11
가. 감사의 개념 ····· 11
나. 감사 성향 ····· 17
다. 감사 성향과 삶의 만족 ····· 19
라. 청소년의 감사 성향 ····· 21
2. 감사 표현 ····· 25
가. 감사 표현과 삶의 만족 ····· 25
나. 감사 표현과 사회적 관계 ····· 27
3. 사회적 지지 ····· 31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형 ····· 31
나.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 33
다. 감사와 사회적 지지 ····· 37
라.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 ····· 39

4. 학교생활만족 ····· 41
가. 학교생활만족의 개념 ····· 41
나.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 42
다.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4

Ⅲ. 연구방법 ····· 47
1. 연구대상 ····· 47
2. 연구절차 ····· 48
3. 연구도구 ····· 49
4. 분석방법 ····· 52

Ⅳ. 연구결과 ····· 55
1. 기술통계 ····· 55
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 55
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 56
2.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 분석 ····· 58
가. 측정모형 분석 ····· 58
나. 구조모형 분석 ····· 59
다. 매개모형 검증 ····· 64
3. 남녀 집단 간 비교분석 ····· 65
가. 남녀 집단 간 다집단 분석 ····· 65
나. 남녀 집단 간 잠재변인 평균 차이검증 ····· 67

Ⅴ. 논의 및 결론 ····· 70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 70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76

참고문헌 ····· 78
부록 ····· 97
Abstract ····· 102

표 목 차

<표 Ⅰ-1> 감사의 정의 ····· 12
<표 Ⅲ-1> 감사 성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49
<표 Ⅲ-2> 감사 표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51
<표 Ⅲ-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51
<표 Ⅲ-4> 학교생활만족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 52
<표 Ⅳ-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55
<표 Ⅳ-2> 잠재변인의 상관 ····· 56
<표 Ⅳ-3> 측정변인의 상관 ····· 57
<표 Ⅳ-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59
<표 Ⅳ-5>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 61
<표 Ⅳ-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 62
<표 Ⅳ-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63
<표 Ⅳ-8>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결과 ····· 64
<표 Ⅳ-9>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 65
<표 Ⅳ-10>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차이 ····· 67
<표 Ⅳ-11> 남녀 학생 집단별 동일성 검증 ····· 68
<표 Ⅳ-12> 남녀 학생 집단별 검증에 대한 차이 ····· 68
<표 Ⅳ-13> 남녀 학생 집단별 잠재평균 차이분석 결과 ····· 69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모형 ····· 8
[그림 Ⅳ-1] 부분매개모형 ····· 60
[그림 Ⅳ-2] 완전매개모형 ····· 60
[그림 Ⅳ-3] 연구모형 ····· 61
[그림 Ⅳ-4] 대안모형 ····· 61
[그림 Ⅳ-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 6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곳이며, 학생들의 학습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으로, 아이들 또한 자신이 속한 환경에 대해 만족하며 생활할 권리가 있다(Verkuyten & Thijs, 2002).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로 정의되며(Baker & Maupin, 2009),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학습적인 측면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만족은 학습에 있어 끈기와 노력, 학습활동 참여, 더 높은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Ainley, Corrigan, & Richardson, 2005;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 더 나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신체 건강, 정신 건강과 같은 적응적 행동과 관련을 맺고 있다(Baker & Maupin, 2009; Huebner, Gilman, Reschly, & Hall, 2009; Park, 2004). 하지만, 아시아권 국가의 경우 교육에 있어 학업적인 성취와 결과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Kim & Chun, 1994), 정서적이고 경험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부족하여 학교생활만족에 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만족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국 학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Park & Huebner, 2005), 이는 한국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서 만족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학교생활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학교생

활만족이 학생들의 긍정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을 매개로 하는지 그 구체적 기제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학생 개인이 가진 성격 특성, 행동 특성 등이 있다(King, Huebner, Suldo, & Valois, 2006).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격적 특성으로 감사 성향을 들 수 있다. 최근 Peterson과 Seligman(2004)은 인간의 성격 특성 중 강점 성격으로 '감사'를 포함하였고, 이를 계기로 감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삶의 만족과 높은 관계를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Wood, Froh, & Geraghty, 2010).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성인에 비해 다소 연구가 부족하지만(Froh, Yurkewicz, & Kashdan, 2009), 청소년의 경우에도 높은 감사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이 높은 안녕감 및 학교생활만족을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Tian, Chu, & Huebner, 2016; Tian, Du, & Huebner, 2015).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감사는 긍정 정서, 학교, 친구, 가족, 주변 환경에서의 삶의 만족, 낙관성, 사회적 지지,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은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Froh et al., 2009). 더 나아가 감사 성향이 높은 청소년이 높은 성적, 사회적 통합, 활동에의 몰두를 경험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Froh, Emmons, Card, Bono, & Wilson, 2011). 이와 같이 감사 성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행동적 표현인 감사 표현을 고려할 수 있다. 감사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Adler & Fagley, 2005), 감사 성향이 주변의 긍정적인 사건 혹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McCullough, Emmons, & Tsang, 2002)으로 감사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해당한다면, 감사 표현은 감사의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감사의 행동적 측면에 포함된다.

감사 표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감사 표현 역시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Seligman, Steen, Park과 Peterson(2005)의 연구에서 감사함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이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장 지속성 있는 방안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의 긍정적 영향을 살펴본 Froh, Kashdan, Ozimkowski과 Miller(2009)의 연구에서 감사 표현 활동이 학생들의 긍정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감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감사 표현에 관한 연구는 감사 성향에 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Lambert & Fincham, 2011).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적 표현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Lambert, Clark, Durtschi, Fincham, & Graham, 2010). 또한, 실제 교육 현장에서 행동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교육적 개입 방향 및 지도방안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으로는 감사 성향을, 행동적 특성으로는 감사 표현을 설정하여 이들이 각각 학교생활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이들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편,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Cohen & Hoberman, 1983)을 의미하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함을 밝히고 있으며(Kong, Ding, & Zhao, 2015; Wood, Maltby, Gillett, Linley, & Joseph, 2008),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Chen & Kee, 2008).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은 Fredrickson(2004)의 확장-수립가설(broden & build theory)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부정 정서와 다르게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혀주며(broden), 넓어진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신체적, 지적, 사회적인 개인 자원을 형성(build)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긍정 정서에 해당하는 감사가 자신 주변 사람들의 존재나 도움을 확인하고 지지를 지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며(Grant & Gino, 2010; Williams & Bartlett, 2015),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 및 행동을 높게 보인다(Algoe, Dwyer, Younge, & Oveis, 2019; Williams & Bartlett, 2015). 또한,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며(이승연, 한미리, 2016), 감사 표현과 관계 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상원, 이동귀, 2020). 더불어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에 있어 공동의 힘(communal strength)을 높게 지각하며, 상대를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Lambert et al., 2010; Lambert & Fincham, 2011). 따라서 감사 성향과 마찬가지로 감사 표현 또한 상대의 존재나 도움에 대해 높게 지각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감은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anielsen, Samdal, Hetland, & Wold, 2009; Diener & Fujita, 1995). 특히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이 관계를 맺고 생활하고 있는 교사, 친구, 가족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이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Hui & Sun, 2010; King et al., 2006). 따라서 학생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Jiang, Huebner, & Siddal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 및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기제를 파악하고자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고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에 관한 연구에 있어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성인과 유사하게 청소년 및 어린 학생들에게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사 성향이 높으며, 감사 표현 또한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ordon, Musher-Eizenman, Holub, & Dalrymple, 2004; Kashdan, Mishra, Breen, & Froh, 2009). 하지만 감사 성향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대한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혼재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남학생이 감사 성향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Tian et al., 2015), 남녀 학생이 얻는 혜택이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기도 한다(Froh et al., 2009). 따라서 감사발달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에 관한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안되고 있다(Wu, Huebner, & Tian, 2020).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감사 성향과 심리적 이점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지는 살펴보았지만, 감사 표현과 관련하여 남녀 성별에 따른 심리적 이점의 차이에 관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학교생활만족과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적응적인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구체적 기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탐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요소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에 있어 성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Kashdan et al., 2009), 감사 성향 및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을 파악하며, 그 구체적 기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감사 성향에만 초점을 둔 것과 달리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포함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또한,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 있어 구체적 기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정하였고,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각각 학교생활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 표현의 대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소통하는 교사, 친구로 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또한 교사, 친구로 구분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여학생의 학교생활만족이 남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하며(Danielsen et al., 2009; Verkuyten & Thijs, 2002), 감사 성향 또한 여학생이 더 높음을 보고한다(Wu et al., 2020). 하지만, 감사 성향으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이점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에는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다(Froh et al., 2009; Tian et al., 2015).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학교생활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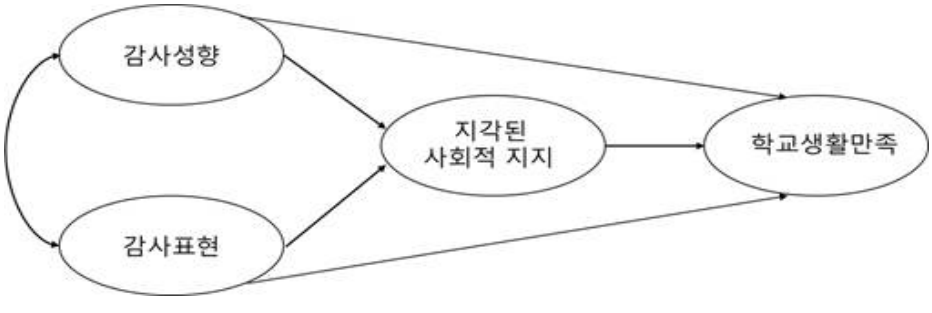
연구가설 1.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가?

연구가설 2. 감사 성향,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3 :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3.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가 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Ⅰ-1] 연구모형

3.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가. 감사 성향

Wood 등(2010)은 감사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느끼는 '삶의 지향성'이라고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감사를 상대방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될 경우, '평화로운 아침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을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경험이나 결과 혹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나. 감사 표현

감사 표현은 가정, 학교, 부모, 친구, 선생님 등 일상을 살아가는 매일의 직접적인 환경에 해당하는 미시체계(Bronfenbrenner, 1979)중 학교에서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교사, 친구에게 감사함을 얼마나 표현하는지로 정하였다.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교사, 친구를 선정하였다(Danielsen et al., 2009).

라.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에서 하는 경험 전반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어진다(Huebner,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감사 성향

가. 감사의 개념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는 최대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부모이다.”라고 하며 감사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겼다. 우리 사회에서도 감사 인사를 잘 하는 것을 중요하고 예의 바른 태도라 여겨 왔다. 일상적인 삶에서 감사는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아왔지만 심리학자들에게 있어 감사는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는 아니었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하지만 인간의 강점과 긍정적인 특징에 관심을 두는 긍정 심리학의 대두와 함께 감사 또한 연구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Peterson과 Seligman(2004)은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인간의 이상행동에 관한 분류인 DSM에 대응하는 인간의 강점 성격과 미덕에 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는데, 본 분류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24가지의 긍정적 특징과 강점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사, 희망, 유머, 이타주의, 겸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감사를 ‘초월의 덕’에 포함되는 성격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계기로 감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감사가 개인 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만큼 하나의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연구자에 따라 감정, 태도, 정서, 미덕, 습관, 성격특성, 대처방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되고 있다(Emmons & McCullough, 2003). Peterson과 Seligman(2004)은 감사를 타인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이익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같은 평화로운 순간으로부터 받은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거나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내리며 긍정 정서로 보았다. 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감사를 미덕으로 보거나, 공감적 정서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른 구체적인 정의는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Ⅰ-1> 감사의 정의

	정의	핵심개념
Lazarus와 Lazarus(1994)	인생에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상황을 접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 공감할 때 생기는 '공감적 정서'	공감적 정서
Adler와 Fagley(2005)	타인이나 신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 인정하며 그들의 노력이나 희생에 고마움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	긍정 정서
Weiner(1985)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과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겪는 '귀인-의존적 정서'	귀인-의존적 정서

Emmons와 McCullough(2003)	자신에게 긍정적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그 결과가 외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으로 정서와 인지가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정서	정서
McCullough 등(2001)	타인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자신 또한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되는 도덕적 정서	도덕적 정서
Howells(2007)	고마움을 표현하는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생각이나 정서라기보다 일상적인 삶에서 표현하는 것	행동적 실천

학자들마다 다양한 개념으로 감사를 개념화하고 있지만 많은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정서로 보고 있으며(Adler & Fagley, 2005; Peterson & Seligman, 2004) 이를 통해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이점을 얻게 되었다(Howells, 2014). 덕 윤리학에서는 감사를 상대가 제공한 혜택을 보답해야 한다는 의무개념을 제시하며 감사를 덕으로 보는 고대의 관점을 부활시키기도 하였다(추병완, 2015). 또한,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도 감사를 단순한 정서가 아닌 미덕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Tudge, Freitas와 O'Brien(2015)은 현대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주로 정서 특질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로 안녕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감사를 정서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며 미덕으로 보아야 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는 과정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님을 지적하며 감사를 미덕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만 그러한 미덕이 어떻게 발전하고 그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해석이 가능함을 제안한다. 감사를 미덕으로 정의 내릴 때 필요한 3가지 요소로는 (1) 한 개인이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타인에게 도움이나 혜택을 제공하며, (2)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의 의도성을 알아차리고, (3) 더 나아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시 보답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미덕으로서의 감사에는 행동적 요소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도움 준 사람의 요구나 필요에 적합한 것으로 보답하는 것이 요구된다. 상대의 의도성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요구나 필요에 적절한 것을 보답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입장 되어보기와 같은 능력이 요구되며 인지적인 부분도 요구되므로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미덕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감사를 단순히 정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정서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McCullough 등(2001)은 사람들이 감사를 경험할 때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 받으며 그러한 도덕적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며 더 나아가 해로운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 또한 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감사가 도덕적 탐지기(moral barometer), 도덕적 동기부여자(moral motivator), 도덕적 강화자(moral reinforcer)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덕적 탐지기란 다른 사람이 친절하게 혹은 도움이나 혜택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뜻하며, 도덕적 동기부여자는 그들 또한 타인에게 도움 행동을 제공하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도덕적 강화자는 이전에 한 친사회적인 행동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도덕적인 행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기능을 뜻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동기화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감사를 정서로 보는 입장으로 Emmons와 McCullough(2003)는 감사를 타인이나 도덕적 행위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서적 경험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감사의 대상에는 꼭 사람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신, 운명, 우주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정서가 아닌 두 단계의 정보처리 과정을 통해 감사 정서를 경험함을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일이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의 원인이 외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겪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감사를 귀인-의존적인 정서로서 제안한 Weiner(1985)의 의견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감사는 두 단계의 인지 과정을 통해 겪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원인이 외부적인 것임을 인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제안하였다. 감사의 핵심은 나에게 좋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 알아차리는 것과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 대상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기쁨, 즐거움과 같은 즉각적이며 단순한 정서가 아닌 인지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복합적 정서이다(McCullough, Kimeldorf, & Cohen, 2008).

기존의 정서로 보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 더 넓은 개념의 감사에 대한 개념 또한 존재한다. Wood 등(2010)은 기존의 감사 개념에서 주로 상대의 도움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McCullough et al., 2001)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감사를 상대로부터 받은 도움에 대해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할 경우 '평화로운 아침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음을 제시하며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알아차리고 고마움을 느끼는 '삶의 지향성'이라고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넓은 개념의 감사를 개념화하기 위해 감사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분석하여 그들이 측정하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상위 개념이 있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감사를 측정하는 GQ-6(McCullough et al., 2002),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 GRAT(Watkins, Woodward, Stone, & Kolts, 2003)척도들이 측정하고 있는 8가지 측면들이 '삶의 지향성'이라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모아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따라서 3가지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8가지 개념들은 '삶의 지향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들은 감사를 타인의 도움에 대한 반응으로 개념화할 경우 많은 연구들이 설명하고 있는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음을 제안한다. 이것은 자신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해석인 귀인 이론(Weiner, 1985)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낮은 안녕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성공을 통제하기 어렵고, 지속이 짧으며, 타인의 행동으로 귀인 하는 경우가 많은데(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이러한 귀인 양식은 불안(Ralph & Mineka, 1998)이나, 부정적인 정서(Sanjuán, Pérez, Rueda, & Ruiz, 2008)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사를 단순히 타인에 대한 도움만으로 개념화할 경우,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안녕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음 제안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감사를 자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으로 넓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나. 감사 성향

Rosenberg(1998)는 정서를 특질(trait)과 기분(mood), 정서(emotion)로 분류하였으며 크게는 특질적인 것과 상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특질적인 것은 각 개인의 환경에 대한 반응의 일관적인 경향성을 뜻하는 것으로 개인차가 존재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안정적인 개념이다. 반면 상태적인 것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서(emotion)와 기분(mood)이 포함된다. 감사 또한 다른 정서들과 유사하게 타인의 친절에 대한 a)정서적 반응(emotion), 삶에서 가치롭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인 b)기분(mood), 타인이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감사하는 성향을 반영하는 c)특질(trait)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Ma, Tunney, & Ferguson, 2017).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특질(trait)과 정서(emotion)에 집중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분(mood)으로서의 감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추병완, 2016). 그렇다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특질(trait)로서의 감사와 상태(state)로서의 감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특질(trait)로서의 감사를 살펴보겠다. McCullough 등(2002)은 특질로서 감사를 뜻하는 감사 성향(gratitude disposition)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감사 성향을 긍정적인 경험이나 결과 혹은 다른 사람이 제공한 혜택을 인식하며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일관성 있는 경향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이 갖고 있는 특질적인 것으로 개인차가 있으며, 안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더 강하게 그리고 잦은 빈도로 감사를 경험하며, 더 넓은 범위의 대상에게 더 깊이 있는 감사를 경험한다. 즉,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McCullough, Tsang, & Emmons, 2004).

다음으로 상태(state)로서의 감사는 일시적인 정서(affect) 혹은 기분(mood)를 포함하는 것이다. 은인이나 초자연적 힘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때 그것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였을 때 발생한다(Tsang, 2006). 따라서 감사 성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일상에서 받은 혜택이나 도움을 통하여 상태적 감사를 경험할 수 있다.

상태적 감사와 특질적 감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 탐색한 Wood, Maltby, Stewart, Linley와 Joseph(2008)은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이 왜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감사함을 느끼는지 즉, 상태적 감사를 더 자주 경험하는지에 대한 기제를 탐색하였다. 그들은 상태적 감사와 감사 성향을 매개하는 '혜택 평가(benefit appraisal)'을 제안하였다.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혜택을 받을 때 혜택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혜택에 대한 평가는 그 도움이나 혜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진정성' 있는 도움인지, 도움을 제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이 혜택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할수록 더 높은 상태적 감사를 경험하리라 생각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 시나리오, 실험적 상황의 3가지 연구를 통한 결과 감사 성향과 상태적 감사 사이를 혜택 평가가 부분 혹은 완전 매개하였다. 즉,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인지적 편향이 작용하여 상태 감사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높은 감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이나 혜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독특한 인지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감사 상황을 느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감사 성향과 삶의 만족

개념적으로 감사는 삶의 만족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필수 요소인 긍정적인 삶의 환경을 인식하고 음미하며,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한 타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것은 더 큰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행복을 위한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게 해 준다. 감사는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감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세계관의 지표로서 전형적으로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낸다(Wood, Maltby, Stewart, & Joseph, 2008).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빈번하고 강렬한 상태적 감사를 느끼며(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보다 적응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하며(Wood, Joseph, & Maltby, 2009), 긍정적인 사건을 더 오랫동안 기억하며(Watkins, Grimm, & Kolts, 2004), 삶과 소유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환경에서 긍정적인 것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춘다(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이와 같이 감사 성향은 삶의 만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 성향 측정 도구 연구에서 살펴보면, 감사 성향이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와 높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는 삶의 만족도, 긍정 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낙관주의, 영성을 통제하였을 때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에 따른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본 Chopik, Newton, Ryan, Kashdan과 Jarden(2019)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감사와 안녕감은 일정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감과 감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감사 성향에 따라 안녕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 간 연구 방법을 많이 활용하였다면, 피험자 내 방법을 활용하여 각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감사에 따라 안녕감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연구도 존재한다. Nezlek, Krejtz, Rusanowska와 Holas(2019)는 실험적인 연구가 아닌 일상적 삶에서 개인이 매일 겪는 감사의 수준이 변화에 따라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조절해 줄 것이라 예측하였다. 2주 동안 피험자들에게 매일 안녕감, 감사, 일상생활 속 사건들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감사가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를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를 많이 경험한 날은 스트레스와 안녕감 사이의 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피험자 내 설계를 사용하여 매일의 변화하는 감사가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감사 성향과 삶의 만족의 관계는 뇌 구조,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그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Kong, Zhao, You와 Xiang(2020)은 화소 기반 형태 분석법(VBM: voxel-based morphometry)으로 뇌의 백질과 회색질 구조를 비교한 결과 감사 성향이 사회 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내측 전두엽 피질의 더 작은 백질 및 회색질과 연관되어 있으며, 감사의 사회적 기능을 보고하는 행동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감사 성향과 관련된 내측 전두엽 피질의 구조적 변화도 삶의 만족을 크게 예측하였으며, 이들 관계를 감사 성향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5 성격 요인을 통제한 뒤에도 이런 결과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청소년의 감사 성향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높은 감사 성향을 가진 성인들이 높은 삶의 만족을 보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감사 성향이 삶의 만족 및 안녕감과 높은 관계를 맺음을 보고하고 있다. Froh 등(2009)은 11-13살의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안녕감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감사 성향은 긍정 정서, 학교, 친구, 가족, 주변 환경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낙관성, 사회적 지지, 친사회적 행동과도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었다. 더불어 두통이나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은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에게 있어 물질주의와 감사가 각각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본 Froh 등(2011)의 연구에서 감사하는 학생들이 높은 성적, 높은 삶의 만족도, 사회적 통합, 활동에의 몰두를 경험하는 반면, 질투나 우울증은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업 성적, 높은 질투심과 삶의 만족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감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내적 만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반면, 물질주의는 물질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일시적인 만족감과 사회적 지위 같은 외적 목표(Kasser & Ryan, 1996)를 추구하게 함을 제시하며 감사함을 갖는 것이 청소년에게 있어 삶의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물질주의와 다르게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해 줌으로써 행복에 대한 감정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감사 성향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이나 적응과도 높은 관련을 보고하고 있다. Tian 등(2016)은 중국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학교생활 주관적 안녕감은 학교생활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학교생활만족과 학교생활에서의 긍정 정서 부정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감사 성향은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를 친사회적 행동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자들은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 만족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남학생의 경우 감사 성향이 증가할수록 학교생활만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감사 성향의 긍정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의 발달에 관해 연구한 Wu 등(2020)의 연구에서 감사발달의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여학생의 경우 높은 감사 성향의 발달단계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감사 성향을 보이는 학생일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에 탁월한 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성향과 안녕감을 설명할 수 있는 기제에 관한 연구 또한 존재하는데,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에서의 안녕감의 관계를 친사회적 행동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며(Tian et al., 2016), 긍정서와 부정정서가 매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Sun & Kong, 2013). 한편, Caleon, Ilham, Ong과 Tan(2019)은 싱가포르 8-9학년 대상으로 감사와 학교생활에서의 안녕감의 관계를 대인관계 영향과 학교 회복 탄력성이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밝혔다. 그들은 청소년의 감사가 자신의 주변에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인 학교에서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학교

에서 안녕감에 영향을 유의하게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청소년의 감사 성향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의 만족감이나 안녕감을 넘어서서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Bono 등(2019)은 청소년의 감사 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사이의 관계를 4년의 기간 동안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한 청소년들이 더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8세의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감사의 성장이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예측하였으며,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 또한 감사의 성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에게 있어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h 등(2009)의 연구에서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횡단적으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감사와 친사회적 행동은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감사의 성장이 가족의 지지, 신뢰, 의도적 자기 조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순간적인 행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이나 사회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통합과도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한 연구 또한 존재한다. Froh, Bono와 Emmons(2010)는 청소년의 감사가 타인을 도와주고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동기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였다. 10-1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6개월 종단연구에서 감사가 사회적 통합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삶의 만족도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성향이 청소년에게 있어 순간적인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 이웃이나 자신의 세계에 그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동기인 "상향적 생산성"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 등을 통해 청소

년의 감사 성향이 단순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감사와 관련된 연구에서 대부분 청소년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학업 상황과 관련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King & Datu, 2018). 감사와 물질주의가 학업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Froh 등(2011)의 연구에서 물질주의를 통제하였을 때 감사는 높은 성적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성적을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이에 King과 Datu(2018)는 감사가 실제 학업적 상황에 관련된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와 학습동기, 학습 참여, 학업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에서는 감사 성향이 학생들의 자발적 동기와 행동적 정서적 참여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장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감사 성향은 무동기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가 학업성취와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 감사가 학업적 결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사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감사함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못한 대상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고, 통제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글로 쓰도록 지시하였다. 그 결과 감사집단의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에 비해 더 높은 인지적, 정서적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Froh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보고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 학교 성적을 사용하였으며 학업 참여 또한 자기 보고식과 교사 관찰 보고를 함

께 사용하여 좀 더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가 실질적 학업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지만 감사와 청소년의 학업을 직접적으로 관련이 깊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임경희(2009) 또한, 감사 성향이 긴장감이나 지나친 낙관성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적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청소년의 감사와 학업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감사 표현

가. 감사 표현과 삶의 만족

감사 표현 또한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Seligman 등(2005)은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감사 표현 행동하기, 3가지 좋은 것 적기, 자신의 강점 적기, 나의 장점을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기, 강점 자주 활용하기의 5가지 활동이 사람들의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성 및 지속성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에게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는 감사 표현 활동은 일주일간의 개입 결과 다른 활동에 비해 사람들의 행복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며 우울 증상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효과가 즉각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oh 등(2009)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8-19세의 학생들을 감사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감사집단의 학생들에게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지금까지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편지를 쓰게 하고 통제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어제 한 일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시하였다. 학생들은 5일 동안 매일 위와 같은 활동을 하였고, 감사집단의 학생들은 2주 차에 감사편지의 대상을 만나고 직접 전달하도록 지시받았다. 연구결과 감사집단의 학생 중 긍정 정서가 낮은 학생들이 통제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더 많은 감사를 느끼고 긍정 정서를 높게 가졌다. 2달 후에 진행된 사후 검사에서도 긍정 정서를 높게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를 통해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긍정 정서가 낮은 학생들의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감사 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를 살펴본 이승연과 한미리(2016)의 연구에서 자신의 배우자, 자녀, 친구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관계 만족과 정신적 웰빙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을 때 감사 성향보다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Lyubomirsky, Dickerhoof, Boehm과 Sheldon(2011)는 안녕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알려진 두 가지 활동, 낙천적 사고방식과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가를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들은 활동의 개입에 있어 자발적으로 활동을 선택하는 것과 활동에 들이는 노력이 안녕감 증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 자발적으로 낙관적 사고와 감사 표현하

기를 선택한 집단에서 개입 직후뿐만 아니라 6개월 후의 후속연구에서도 안녕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에서 안녕감 증진을 위한 활동에 성실한 노력을 들인 집단에서 안녕감의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활동 자체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 감사 표현과 사회적 관계

감사 표현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감사 표현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긍정적 영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감사의 정서가 관계 형성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며 Algoe(2012)는 '발견-회상-결속(find-remind-bind)' 이론을 제시한다. 이 이론은 감사가 단순히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본 이론에서 감사가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를 통해 심리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새로운 관계를 '발견'하게 해주며, 감사를 통해 기존의 관계에 대해 '회상'하게 하며, 관계를 좀 더 굳게 '결속' 해주는 역할을 함을 제안한다.

Williams와 Bartlett(2015)은 '발견-회상-결속(find-remind-bind) 이론에 추가적으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이론 중 감사 표현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발견'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지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의 대학입학지원서 수정을 하는 활동을 한 후 감사편지를 받는 것으로 실험상황을 설정

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상황에서 입학지원서를 수정해 주고 손으로 쓴 감사편지를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분을 한 후 각 집단에서 자신의 멘티 학생에게 따뜻함을 얼마나 느꼈는지(perceived warmth),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affiliation intention), 친해지고자 하는 행동에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집단의 학생들이 멘티 학생을 더 따뜻하게 느꼈으며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더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개인적 연락처를 제공하며 친해지고자 하는 행동까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감사 표현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Algoe 등(2019)은 감사 표현의 관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게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에는 자신의 연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영상, 자신의 연인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영상, 중립적인 사실만을 표현하는 영상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영상을 본 후 참여자들에게 영상 속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한다. 연구결과 감사 표현을 관찰한 집단에서 자기개방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감사 표현을 한 사람들에게 더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친밀해지고자 하는 의도를 높게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표현하는 행동 자체가 사회적 관계 인식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Lambert 등(2010)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지각된 공동의 힘(communal strength)에 미치는 영향을

횡단적, 종단적,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관계 만족, 사회적 바람직성, 성별, 나이, 관계의 유형이나 기간을 통제했을 때도 높은 수준의 감사 표현은 공동의 힘을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첫 번째 시기의 감사 표현이 두 번째 시기의 공동의 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험적으로 a)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집단, b) 일상적인 사건(중립집단), c)감사한일을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은 집단, d) 관계에서 있었던 긍정적인 일을 표현하는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에서 관계에 있어 공동의 힘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공동의 힘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함을 단순하게 떠올리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이 관계인식에 있어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Lambert와 Fincham(2011)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 감사 표현이 관계유지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임을 제시하였으며 종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감사 표현이 관계유지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집단을 a) 감사 표현 집단, b) 긍정 표현집단, c) 통제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서의 관계유지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감사 표현집단에서 관계 유지 행동을 더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유지 행동의 기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 표현집단에서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관계유지 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주목할 점은 통제집단에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 생각하는 집단을 추가하였는데, 감사함을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표

현하는 것이 관계유지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감사 표현이 상대방으로부터 도움 행동을 더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존재한다. Kong과 Belkin(2019)은 자원분배상황을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자원을 주었을 때 감사 표현을 듣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나누고 그다음 자원분배상황에서 어떤 동기와 행동을 갖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감사 표현을 상대로부터 받은 집단에서는 상대방의 자비심을 더 높게 인식하였으며 자비심을 매개로 친사회적 동기가 유발되며 그를 통해 친사회적 결정을 함을 발견하였다.

Grant와 Gino(2010)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감사 표현의 관계적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이력서를 검토해주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력서를 검토해주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감사 표현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눠서 그들의 행동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감사 표현을 들은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후에도 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감사 표현은 상대로부터 더 많은 도움 행동을 유발함을 시사하며 감사 표현을 한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지지와 도움을 받는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제공받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병리적 문제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Cohen & Wills, 1985; 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미로 정의하고 있는데, Cobb(1976)의 전통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가치롭게 느껴지거나 존중받는 느낌, 사회적 관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세 가지로 구성됨을 제안하였다. Malecki와 Demaray(2002)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반적인 지지 또는 지지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특정 행동을 강화해주거나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원 정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Cohen과 Wills(1985)는 사회적 지지가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의 실재적 존재 여부를 뜻하며,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나 친구의 수, 방문빈도, 소속된 집단의 수와 같은 것들을 통해 측정된다. 다음으로, 기능적 측면은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실제로 받는 자원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

고 있으며 관계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의논할 친구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Cohen & Hoberman, 1983). 이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려면 스트레스의 유형에 적합한 방식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었을 때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하위차원을 다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1) 평가지지, 2) 존중감 지지, 3) 소속감 지지, 4) 실제적 지지로 구분하였으며, Barrera, Sandler와 Ramsay(1981)는 1) 지각된 지지, 2) 실행된 지지, 3) 지지망의 세 범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내재된 사회적 지지(Social Embeddedness), 지각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 실행된 사회적 지지(enacted social support)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내재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뜻하는 개념으로, 형제자매의 유무나 결혼 여부와 같은 것들로 양적으로 측정하는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뜻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행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 도움이 필요할 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구체적 도움을 뜻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도움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관한 것인 반면, 실행된 사회적 지지는 실제로 받은 도움을 일컫는다. 연구자들은 각 개념이 서로 독립적이고 구분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가 서로 다른 기제를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실행된 사회적 지지와 관련하여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실행된 사회적 지지에 비해 일관성 있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obb, 1976; Wethington & Kessler, 1986).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적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알려져 있다(Demaray, Malecki, Davidson, Hodgson, & Rebus, 2005; Norris & Kaniasty, 1996). 따라서 실제 행해진 사회적 지지 보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지지의 제공자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체로도 나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연구자들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를 부모, 또래, 교사로 설정하기도 하고(Danielsen et al., 2009; Dubow & Ullman, 1989), 교사, 부모, 학급 친구, 친한 친구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한다(Malecki & Demaray, 2002). Bronfenbrenner(1979)는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 체계의 다섯 가지 수준의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의 예로는 가정 및 가정환경, 학교, 또래 및 이웃 간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으며, 미시체계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아이가 부모, 교사, 급우, 친구 등 주요 지지 제공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있

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들과 매일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교사의 사회적 지지

교사는 학급을 이끄는 역할을 하며, 학급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존중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유대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학교생활에서 따뜻함과 배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제공자로 기능할 수 있다(Baker, 1999; King et al., 2006; Rosenfeld, Richman, & Bowen, 2000).

우선, 교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행동적, 정서적, 인지적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Wang & Holcombe, 2010). 또한, 교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산만하고 일탈적인 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Garnefski & Diekstra, 1996). 또한,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업적 유능감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en et al., 2009).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학교참여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Wang과 Eccles(2012)의 연구에서 교사의 지지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 규칙 준수가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나 학습에 대한 주관적 가치에도 교사의 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사의 능력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낮게 가지며, 그를 통해 학업적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ult, Green-Demers, & Pelletier, 2006).

학업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교사의 지지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한다.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교생활에서의 만족은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en et al., 2009).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즐거움이 증가뿐만 아니라 '학교 소속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eser, Midgley, & Urdan, 1996). 이와 같이 교사의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교사, 또래, 부모 지지의 영향 중에서도 교사의 지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anielsen et al., 2009; Jiang et al., 2013). 하지만, Rosenfeld 등(2000)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 또래, 친구의 지지를 모두 높게 지각할 때 하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의 지지를 높게 지지할 때보다 출석률, 공부시간, 학습 참여, 자기효능감, 성취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모두 유형의 지지 제공자로부터 지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또래의 사회적 지지

또래란 연령이 비슷하며 서로의 지위가 동등하며 일상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대상을 뜻한다(Santrock, 1987).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학생들은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서 또래와의 친밀감이나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다. 실제로 청소년기 학생들은 부모, 교사, 또래 중 또래의 지지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높게 보고하기도 한다(Demaray & Malecki, 2002).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감정은 청소년들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교생활, 학교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Wang과 Eccles(2012)는 청소년기 시기에 시간이 갈수록 학교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이 사회적 지지에 의해 완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친구로부터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과외활동, 학교에 대한 인식, 학습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감소 현상에 대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친구로부터의 지지가 학교에 대한 인식과 학습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수업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부적응적 행동을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gault et al., 2006).

또한, 많은 연구에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uBois, Felner, Meares, & Krier, 1994; Wenz-Gross, Siperstein, Untch, & Widaman, 1997).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불안이나,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Demaray et al., 2005), 또래관계에 관한 스트레

스를 높게 지각하며, 또래들로부터 낮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낮은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다(Wenz-Gross et al., 1997). 또한, 또래로부터의 지지는 삶의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Danielsen et al., 2009).

다. 감사와 사회적 지지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는 개념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Fredrickson(1998)은 긍정 정서가 독특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확장-수립(broden & build)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정정서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제한하여 넓은 범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긍정 정서는 사고를 유연하고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넓혀주며(broden), 넓어진 사고와 행동을 통해 신체적, 지적, 사회적인 개인 자원을 형성(build)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즉, 긍정 정서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상향적 상승 곡선을 유발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음을 제안하는데, 감사 또한 이러한 긍정 정서의 독특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Fredrickson, 2001). 즉, 감사하는 마음과 같은 긍정 정서는 자신의 주변의 다양한 도움을 알아차리게 하며 그를 통해 사회적 지지와 같은 자원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Wood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성향이 높은 사회적 지지, 낮은 스트레스, 낮은 우울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관계는 빅5 성격특성을 통제하였을 때도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도움들에 대해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지지를 더 잘 지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도 이 관계가 유의함을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데, 11-14살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감사 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살펴본 Froh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Chen과 Kee(2008)는 사춘기 운동선수들의 감사 성향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코치나 팀 동료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이를 통해 안녕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감사 성향은 다른 사람들의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게 하며 그를 통해 더 만족하는 삶이나 안녕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연구들은 시사하고 있다.

감사 성향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람들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개방을 더 많이 하며, 감사 표현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도움 행동의 동기를 더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lgoe et al., 2019). 더 나아가, 감사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더 도움 행동을 많이 하며, 친해지고자 하는 의도 및 행동을 높게 보고하고 있다(Kong & Belkin, 2019; Williams & Bartlett, 2015). 뿐만 아니라,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이나 결혼생활 만족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이승연 & 한미리, 2016; 정영숙 & 김선미, 2016; 김아슬, 2013). 연인 사이의 관계 만족에 있어 감사 표현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변상원과 이동귀(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 사이에서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상호간의 지지를 높게 지각하며 그를 통해 관계 만족을 높게 보고함을 밝혔

다. 이와 같이 감사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데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라.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

사회적 지지는 대처 전략 중 적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대처 전략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Diener & Fujita, 1995; 박수원, 신종호, 이선영, 김여은, & 이신형, 2014). 성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은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Demaray et al., 2005; Legault et al., 2006).

우선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06; Rosenfeld et al., 2000). 부모, 교사, 또래로부터 지지를 높게 인지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출석률을 보이며, 더 많은 공부시간, 적은 문제 행동, 높은 학교생활만족, 높은 학급 활동 참여도, 높은 자기효능감, 더 나은 성적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feld et al., 2000). 또한, 청소년들이 성장할수록 학교참여가 감소하는 현상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Wang & Eccles, 2012).

또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학업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동기, 학업적 결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Legault 등(2006)의 연구에서 교사로부터 능력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학생들은 낮은 능력신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학업적 수행, 학문적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사, 친구, 부모로부터 관계성을 낮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그로 인해 부적응적 행동을 높게 보임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문제 행동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 문제 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King 등(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지지와 문제 행동 사이의 부적 관계를 학교생활만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이 함께 상호작용하고 있는 교사, 부모, 학급 친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적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문제 행동과는 부적으로, 적응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Demaray et al., 2005).

노르웨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만족과 삶의 만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Danielsen 등(2009)의 연구에서 부모, 또래, 교사의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며, 이를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삶의 만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교사의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학교생활만족

가. 학교생활만족의 개념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만족과 관련된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학교에서 하는 경험 전반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된다(Huebner, 1994). 학교생활만족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Verkuyten & Thijs, 2002),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Danielsen et al., 2009), 삶의 질의 한 측면을 나타내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Gilman & Huebner, 2003).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학교생활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한 Epstein과 McPartland(1976)의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들은 학교생활의 질이 1)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 2) 학교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3) 교사에 대한 태도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Huebner(1994)는 기존 성인에게 사용되는 삶의 만족 척도는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단일 요인이 아닌 다차원적 삶의 만족 척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 척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학교, 친구, 가족, 생활환경, 자신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은 삶의 만족을 구성하는 한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는 학교생활만족에 관해 학생들 간의 개인차나 학교의 특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후,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학교와 관련된 연구들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부분들에 초점을 둔 연구가 많았으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나 선행조건, 학교생활만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들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Huebner & Gilman, 2006; Suldo, Riley, & Shaffer, 2006).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학생들의 삶의 과정과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Baker, Dilly, Aupperlee, & Patil, 2003).

나.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은 학생들의 삶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학교생활만족은 관계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낮은 삶의 만족을 보이는 학생들은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예측하기도 하며(Martin, Huebner, & Valois, 2008), 낮은 부모 지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ha, Huebner, Suldo, & Valois, 2010). 이와 같이 학교생활에 있어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적응적인 행동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상황과 문제 행동의 관계를 삶의 만족이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ldo & Huebner, 2004), 이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더라도 삶의 만족이 높은 학생들의 경우 그것을 문제 행동으로 발현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학업성취나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응

적인 행동을 하는 반면,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을 피하고자 외현화, 내면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et al., 2006).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학생들의 적응적인 행동과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만족은 심리·사회적 적응이나 학업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Huebner와 Gilman(2006)은 6-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만족도의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평균집단, 낮은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집단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학업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학교생활만족이 낮은 학생들은 높은 집단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희망,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내적 통제 소재, 학업성취와 같은 모든 적응적인 변인을 낮게 보고하였다. 또한, 평균집단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모든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개인 내적, 학문적으로 전반적인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학교생활만족을 높게 보이는 학생들은 평균집단에 비해 높은 희망, 삶의 만족, 내적 통제 소재, 높은 학업 성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학교생활만족은 학교적응의 효과적인 지표이자 향후 수행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학문적으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만족은 학습적인 변인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Lewis, Huebner, Malone과 Valois(2011)는 삶의 만족과 학습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학습 참여를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는데, 인지적 참여는 학교에서 하는 학문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며, 정서적 참여는 학교나 교사,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것, 행동적 참여는 출석률이나, 학업적 성취, 과제 완수, 학습활동 참여와 같은 것들을 뜻한다. 그들은 7-8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학업 참여와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삶의 만족이 높은 학생일수록 인지적 참여와 정서적 참여를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을 중요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참여를 높게 보이는 학생일수록 삶의 만족을 더 높게 보였는데, 자신의 삶이 희망적이고 학교가 자신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할수록 이후에 자신의 삶을 더 만족스럽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다.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성격, 인지양식과 같은 개인 내적인 특성과 함께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ng et al., 2006). 우선 개인 내적 특성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다. Epstein과 McPartland (1976)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Huebner와 McCullough(2000)의 연구에서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만족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왕따 경험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kuyten & Thijs, 2002). 이는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왕따 경험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학업적 변인 또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혼재된 연구결과를 보인다. Epstein과 McPartland(1976)의 연구에서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사이의 상관을 찾을 수 없음을 밝히며, 학업 성적이 높은 것이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제안한다. 이와 유사하게 학업적 자아개념이 학교생활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며(Baker, 1998). 영재 아동과 비영재 아동들의 삶의 만족에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기도 한다(Ash & Huebner, 1998).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 사이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Cock & Halvari, 1999). 이와 관련하여 Verkuyten과 Thijs(2002)는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 요인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학업적 유능감에 대한 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수행과 학교생활만족이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있지만, 학업적 수행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또한 학교생활만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교 만족도와 친구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sh & Huebner, 1998), 특히 한국 학생들의 경우 이 관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Huebner, 2005). 또한, 왕따 경험은 학교생활만족과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Verkuyten & Thijs, 2002).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Danielsen et al., 2009; Jiang et al., 2013).

다음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학급 분위기

를 들 수 있다. 친밀하고 지지적이며 돌봄을 제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학급 분위기는 학교생활만족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스트레스나, 심리적 고통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Baker, 1998). 또한, 숙달 목표를 강조하고 경쟁을 강조하지 않는 분위기는 학생들의 학업적 동기부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mes, 1992). 학생들에게 유능감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성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학교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Baker et al., 200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있는 3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52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5학년 195명(37.2%), 6학년 329명(62.8%)이고, 남학생 244명(46.6%), 여학생 280명(53.4%)이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초기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줄어들며,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하기 시작한다(Saarni, 1999). 공감하는 능력은 감사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감사의 정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에게 준 도움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에 응답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McCullough et al., 2001). 또한, 감사의 정서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타인의 행동에서 의도나 비용을 이해하고, 자신이 얻은 혜택의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잡한 정서에 해당한다(Wood, Maltby, Stewart, Linley, et al., 2008). 따라서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성격 특성과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Peterson과 Seligman(2004)의 연구에서 어린아이들에게서 감사와 행복 사이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초기 청소년기 이전 시기에는 감사의 정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심리적 · 관계적 혜택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Froh & Bono, 2008).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해당

하는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 주변의 친구, 선생님, 가족들이 자신에게 주는 도움이나 행동들에 대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위한 의도를 파악하고 비용을 이해하며 자신이 받은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또한, 초기 청소년기 시기에 해당하는 5, 6학년 시기에는 사춘기에 접어들며 신체적 변화를 겪으며, 감정 기복과 예민한 감수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장영애 & 이영자, 2004). 초등학교 시기의 적응은 중학교 혹은 그 이후의 적응적인 삶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5, 6학년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설문지를 구성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단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시행하기 전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서울시 소재 초등학생 6학년 100명(남학생 48명, 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모호하게 느낄 수 있는 감사 표현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과정에서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바탕으로 문항의 적합성 및 하위 구성 요인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승인을 얻은 이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3개 초등학교 5, 6학년 550명에게 배포하였다. 설문은 2020년 10월 약 2주의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 550부의 설문 중 설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은 불성실한 응답 및 이상치를 제외한 524명의 답변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3. 연구 도구

가. 감사 성향

감사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2002)의 GQ-6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권선중, 김교헌, & 이홍석, 200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Q-6는 감사함의 감정적 경험을 얼마나 자주, 강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의 삶에는 감사할 거리들이 아주 많다.”와 같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문항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표 Ⅲ-1> 감사 성향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감사 성향	1,2,(3),4,5,(6)	6	.82

( ): 역채점 문항

나. 감사 표현

감사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Lambert와 Fincham(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감사 표현 척도를 한미리(2018)의 연구에서 번안한 것을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Lambert와 Fincham (2011)의 연구에서는 '파트너'에 대한 감사 표현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환경에 적합하게 친구, 교사로 대상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본 문항의 경우 대상당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학생의 경우 자기 보고식 문항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문항 수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문항 수를 추가하기로 하였다(Duckworth & Yeager, 2015).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감사척도(Appreciation Scale)(Adler & Fagley, 2005)를 한국어로 번안 후 타당화 한 한국판 감사척도(노지혜 & 이민규, 2012)의 하위영역 중 '표현'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 중 앞선 3문항과 중복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총 5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심리전공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각 대상당 5문항 총 10문항을 통해 감사 표현을 측정하였으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 준 것들에 대하여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으며 친구, 교사에 대한 문항 간 내적 일치도는(Cronbach α) 각각 .84, .87로 나타났다.

<표 Ⅲ-2> 감사 표현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친구에게 감사 표현	1,2,3,4,5	5	.84
교사에게 감사 표현	6,7,8,9,10	5	.87
전체		10	.89

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Dubow와 Ullman(1989)의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를 조합하여 개발한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를 허민희(2012)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교사, 친구의 지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 α)는 .91로 나타났다.

<표 Ⅲ-3> 사회적 지지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친구지지	1, (2), 3, 4, 5, 6, 7, 8	8	.90
교사지지	9, (10),(11), 12, 13, 14, 15	7	.84
전체		15	.91

( ): 역채점 문항

라. 학교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도는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도록 번안 후 수정한 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문항으로는 “나의 학교생활은 아주 좋다,” “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7로 나타났다.

<표 Ⅲ-4 > 학교생활만족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문항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학교생활만족	1, 2, 3, 4, 5	5	.87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한 후 MPlus 7.0을 사용하여 잠재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검정하였다. 먼저, SPSS 22.0을 사용하여 각 측정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고, Pearson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

의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정상분포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완전정보 최대우도(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기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FILM 방식은 자료의 요약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반응을 모두 활용하여 추정하는 기법이다. FILM 기법은 모든 사례의 로그 우도 함수를 각각 계산한 후 이를 더하여 최종적 로그 우도 함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 편향되지 않으며 더욱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김수영, 2016).

다음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을 따라 연구모형의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는 각각의 하위 요인인 친구에게 감사 표현, 교사에게 감사 표현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측정 변인으로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만족은 단일 요인으로 하위 구인이 없으므로 상관 알고리즘(correlational algorithm)을 사용하여 문항묶음(item parceling)을 통해 문항 꾸러미를 형성하였다. 각 요인당 세 개의 문항 꾸러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추천되고 있으므로(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3개의 문항 꾸러미를 형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을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제시하고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김민규, 김주환, & 홍세희, 2009).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완전 매개모형과 부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검증, CFI, TLI, RMSEA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χ^2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영가설이 너무 엄격하여 쉽게 기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TLI, CFI, RMSEA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매개 효과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사 성향 및 감사 성향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모형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분석(multi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잠재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가.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의 잠재변인인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표 Ⅳ-1>에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경향성 및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다.

<표 Ⅳ-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n=52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감사 성향	1. 감사 성향1	3.73	.89	-.45	-.44
	2. 감사 성향2	4.14	.81	-.77	-.16
	3. 감사 성향3	3.88	.82	-.49	-.31
감사 표현	4. 친구에게 감사 표현	3.91	.74	-.39	-.27
	5. 교사에게 감사 표현	3.52	.84	-.28	-.08
사회적 지지	6. 친구의 사회적 지지	4.00	.73	-.75	.29
	7. 교사의 사회적 지지	3.80	.71	-.48	.10
학교생활만족	8. 학교생활만족1	4.04	.95	-.91	.59
	9. 학교생활만족2	3.45	1.04	-.42	-.40
	10. 학교생활만족3	4.18	.99	-1.13	.63

측정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이 .28 ~ 1.13의 값을 가지며 첨도의 절댓값은 .08 ~ .63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댓값이 3이하이고, 첨도의 절댓값이 10 이하일 경우 단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들의 단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Ⅵ-2>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10개의 측정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Ⅵ-3>에 제시하였다. 잠재변인과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 잠재변인의 상관

	1	2	3	4
감사 성향	-			
감사 표현	.63**	-		
사회적 지지	.64**	.67**	-	
학교생활만족	.60**	.50**	.65**	-

**$p<.01$

<표 Ⅵ-3> 측정변인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감사 성향	1.감사 성향1	-									
	2.감사 성향2	.55**	-								
	3.감사 성향3	.63**	.54**	-							
감사 표현	4.친구에게 감사 표현	.50**	.43**	.58**	-						
	5.교사에게 감사 표현	.47**	.41**	.49**	.60**	-					
사회적 지지	6.친구의 사회적 지지	.48**	.41**	.51**	.60**	.45**	-				
	7.교사의 사회적 지지	.52**	.46**	.52**	.49**	.63**	.61**	-			
학교 생활 만족	8.학교생활만족1	.47**	.45**	.50**	.44**	.41**	.59**	.54**	-		
	9.학교생활만족2	.43**	.39**	.44**	.39**	.38**	.50**	.49**	.68**	-	
	10.학교생활만족3	.37**	.39**	.40**	.34**	.33**	.38**	.42**	.56**	.49**	-

**$p<.01$

2.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 측정모형 분석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 Anderson과 Gerbing(1988)의 2단계 접근법에 따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10.860 (*df*=29)이고 유의도 .001 수준에서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χ^2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TLI, CFI, RMSEA 값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홍세희, 2000). 측정모형 적합도가 TLI=.954, CFI=.970, RMSEA=0.073(90% 신뢰구간 .059 ~ .088)로 전반적으로 좋은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이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값이 .65에서 .88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인부하량 값을 <표 Ⅳ-4>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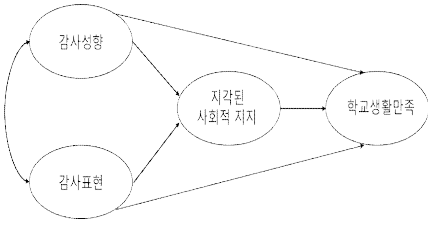
<표 Ⅳ-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S.E.*	*β*
감사 성향	감사 성향1	1.000		0.78
	감사 성향2	0.83***	0.05	0.70
	감사 성향3	0.96***	0.05	0.81
감사 표현	친구에게 감사 표현	1.000		0.81
	교사에게 감사 표현	1.04***	0.06	0.76
사회적 지지	친구의 사회적 지지	1.000		0.79
	교사의 사회적 지지	0.97***	0.05	0.80
학교생활 만족	학교생활만족1	1.000		0.88
	학교생활만족2	0.96***	0.05	0.79
	학교생활만족3	0.77***	0.05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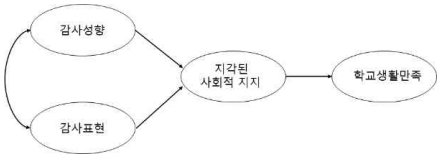
***$p<.01$

나. 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제시하고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김민규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와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 매개모형과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모형을 비교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간명하면서도 변인들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최종모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림 Ⅵ-1] 부분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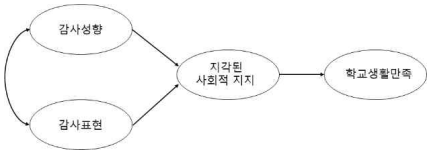
[그림 Ⅵ-2] 완전 매개모형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두 모형 모두 CFI, TLI값이 .90이상이고 RMSEA값 또한 .08이하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두 모형의 적합도와 적합도 차이 값을 <표 Ⅳ-5>에 제시하였다. 부분 매개모형과 완전 매개모형은 내재된(nested)된 모형이므로 χ^2차이 검증을 통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χ^2차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모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손수경, 김효진, & 홍세희, 2019).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할 때 ΔCFI값이 .01(Cheung & Rensvold, 2002)을 초과하지 않거나, ΔRMSEA값이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두 모형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두 모형의 ΔCFI= 0.005, ΔRMSEA=0.005이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완전 매개모형이 자료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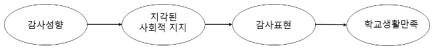
<표 Ⅳ-5> 연구모형과 비교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110.860	29	.970	.954	.073(.059-.088)
완전매개모형	128.956	31	.965	.948	.078(.064-.092)
Δ	18.096	2	.005	.006	.005

또한, 감사 표현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가 연구모형과는 다른 방향성을 갖는 대안모형(그림 Ⅵ-4 참고)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림 Ⅵ-3] 연구모형



[그림 Ⅵ-4] 대안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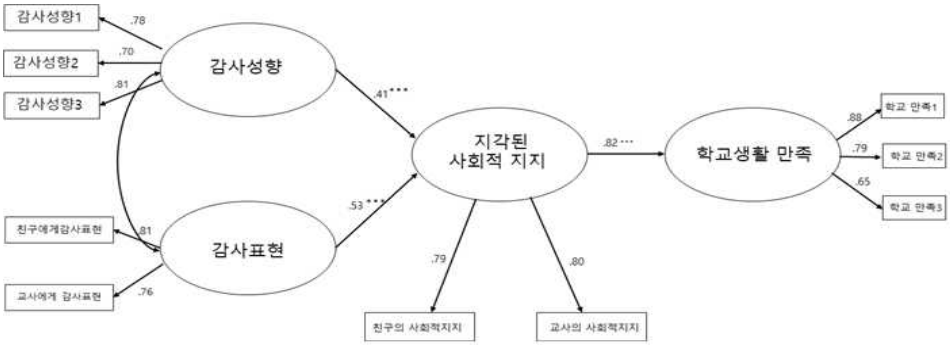
두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은 위계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관계이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χ^2차이 검증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두 모형의 자유도가 다르므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 RMSEA지수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민규 외, 2009). 두 모형의 TLI와 RMSEA값을 비교해보았을 때, 연구모형이 대안모형에

비해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인다. 또한, 위계적으로 내재되지 않은 두 모형을 비교할 때, 모형의 비교지수인 AIC, BIC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수영, 2016). AIC값과 BIC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형임을 의미한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AIC값과 BIC값을 비교하였을 때, 연구모형이 더 작은 값을 가지므로 연구모형을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감사 성향 및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완전 매개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표 Ⅳ-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모형	χ^2	df	AIC	BIC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28.956	31	10677.07	10821.96	.965	.948	.078(.064-.092)
대안모형	162.196	33	10706.31	10842.68	.953	.936	.086(.073-1.000)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형을 토대로 한 경로계수의 검증 결과는 <표 Ⅳ-6>과 [그림 Ⅳ-3]에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β=.41, p<.001),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β=.53,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즉, 감사 성향이 높고 친구, 교사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 학교생활만족'의 경로계수(β=.82, p<.001)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와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만족을 높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그림 Ⅳ-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 Ⅳ-7>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감사 성향 → 지각된 사회적 지지	.35***	.09	.41
감사 표현 → 지각된 사회적 지지	.51***	.11	.53
사회적 지지 → 학교 만족	1.17***	.07	.82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41***	.12	.34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60***	.13	.43

*p<.05, **p<.01 ***p<.001

다. 매개모형 검증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표 Ⅳ-8>에 제시하였다. 이 검증은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홍세희, 2000), <표 Ⅳ-8>에 제시한 것과 같이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모두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게 함으로써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Ⅳ-8>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경로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감사 성향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34	.09	.18	.63
감사 표현 → 사회적 지지→ 학교 만족	.43	.09	.37	.8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 성향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β=.34)을 주며,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β=.43)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감사 성향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 집단 간 비교 분석

가. 남녀 집단 간 다집단분석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검증을 통하여 남녀 집단의 요인 구조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형태동일성을 충족한다는 것은 두 집단 간에 요인 구조가 동일하며, 동일한 측정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형태동일성이 충족되면,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을 확인하는 순서로 다집단 분석을 시행한다(Byrne, 2010). 구체적인 결과는 <표 Ⅳ-9>와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표 Ⅳ-9>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모형1: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157.530	62	.965	.949	.077(.062-.092)	채택
모형2: 측정동일성	170.785	68	.962	.950	.076(.062-.090)	채택
모형3: 구조동일성	171.370	71	.963	.954	.073(.059-.088)	채택

먼저, 형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157.530 (df=62), p<.001, TLI=.949, CFI=.965, RMSEA=.077(.062 ~ .092)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은 두 집단의 요인이 동일한 측정변수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동일성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동일성 모형과 남녀집단 간 측정변수의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때 χ^2차이 검증을 시행하는데, χ^2차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CFI와 RMSEA 차이 값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손수경 외, 2019). 이때, ΔCFI는 .01(Cheung & Rensvold, 2002), ΔRMSEA는 .015(Chen, 2007)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적합도 차이 값을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3, ΔRMSEA=.001이므로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각 집단별로 경로계수가 동일하다는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를 동일하게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앞선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때, CFI와 RMSEA의 차이 값이 측정동일성 모형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구조동일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계수가 남녀 학생 집단에서 동일함을 뜻한다.

<표 Ⅳ-10> 남녀 학생 집단별 연구모형 적합도 차이

모형	$\Delta\chi^2$	Δdf	ΔCFI	ΔTLI	$\Delta RMSEA$
모형1 vs 모형2	13.255	6	-.003	.001	-.001
모형2 vs 모형3	0.585	3	.001	.004	-.003

나. 남녀 집단 간 잠재변인 평균 차이 검증

다음으로, 남녀 집단에 따라 잠재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잠재변인 평균 차이검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두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t-test의 경우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기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김민규 외, 2009). 따라서 잠재평균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집단에서 잠재변인의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잠재평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Hong, Malik, & Lee, 2003). 각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우선 형태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기저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는 χ^2=135.547 (df=58), p<.001, TLI =.956, CFI=.972, RMSEA=.071(.056 ~ .087)로 나타나 형태동일성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저모형과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을 비교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차이

값은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3, ΔRMSEA=.001 이므로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1> 남녀 학생 집단별 동일성 검증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신뢰구간)	비고
형태동일성	135.547	58	.972	.956	.071(.056-.087)	채택
측정동일성	150.075	64	.969	.956	.072(.057 -.087)	채택
절편동일성	194.186	74	.956	.947	.079(.065-.092)	채택
분산동일성	196.644	78	.957	.950	.076(.063-.090)	채택

측정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절편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모형과 측정변인의 절편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두 모형의, ΔCFI=.003, ΔRMSEA=.007이므로 절편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모형이 남녀 집단에서 측정 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12> 남녀 학생 집단별 검증에 대한 차이

모형	$\Delta\chi^2$	Δdf	ΔCFI	ΔTLI	ΔRMSEA
모형1 vs 모형2	14.528	6	-.003	0	.001
모형2 vs 모형3	44.111	10	-.003	-.009	.007

잠재평균 분석에서는 두 집단 중 한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고, 참조집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한 후 나머지 한 집단 잠재평균의 상대적 차이 값을 추정하여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 Ⅳ-13>에 두 집단의 잠재평균 차이 값을 제시하였다.

<표 Ⅳ-13> 남녀 학생 집단별 잠재평균 차이 분석결과

잠재변인	남학생	여학생	효과 크기
감사 성향	0	.18**	.37
감사 표현	0	.32***	.83
사회적 지지	0	.14*	.41
학교생활만족	0	.13	.18

두 집단 잠재변인의 분산이 동일할 경우, 코헨의 효과 크기를 산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을 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였는데, ΔCFI=.001, ΔRMSEA=.003이므로 분산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효과 크기를 계산한 값과 추정된 잠재평균 차이 값을 <표 Ⅳ-1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교생활만족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감사 표현의 효과크기가 .83으로 나타나 감사 표현이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적 요인, 행동적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학교생활만족과 개인의 성격적, 행동적 특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그 기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한 성격적 요인 및 행동적 특성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을 설정하였으며,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이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가 남녀 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향이 학교생활만족,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Froh, Yurkewicz, et al., 2009; Tian et al., 20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감사 표현 활동이 긍정 정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Peterson & Seligman, 2004), 감사 방문하기 활동이나 감사편지 쓰기와 같은 감사 표현 활동이 청소년의 긍정 정서,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Froh, Kashdan, et al., 2009; Kashdan et al., 2009).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에 감사 표현이 감사 성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사람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중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것에 비해 행복감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지속기간 또한 오래 유지된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교사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그들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hen & Kee, 2008; Froh, Yurkewicz, et al., 2009). 이는 Fredrickson(2004)이 제시한 확장-수립가설(broden and build theory)에서 제시하는 감사가 기능하는 방식으로 설명 가능하다. 확장-수립가설에 따르면 부정정서는 사고와 행동 범위를 제한하지만, 긍정 정서는 이와 다르게 행동, 사고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음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넓어진 사고와 행동의 범위는 주변의 육체적, 지적,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한다. 확장-수립가설은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성공적인 삶과 긍정 정서와의 관련성을 메타 분석한 Lyubomirsky, King과 Diener(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 정서가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경우에도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도움, 주어진 혜택과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감사 성향이 자신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도움, 혜택을 더 높게 지각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며 그를 통해 학교생활만족도 또한 높게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감사 표현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이 학교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 친구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 표현이 관계의 힘(communal strength)을 더 높게 지각하게 하며,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Lambert et al., 2010; Lambert & Fincham, 2011).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에게 감사 표현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Grant & Gino, 2010), 친해지려는 의도나 행동을 더 많이 받았을 수 있으며(Williams & Bartlett, 2015), 자신에게 개방적인 태도(Algoe et al., 2019)를 보였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감사 표현이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높은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게 하며, 그를 통해 더 높은 학교생활만족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감사함을 표현했을 때, 상대를 더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며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선행연구(Lambert & Fincham, 2011)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중 감사함을 떠올려보는 것과 감사 표현하기 활동 중 감사 표현하기 활동이 행복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지속효과 또한 더 오래 유지되었던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마지막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학생 집단에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감사 표현이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는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집단 모두에서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Froh 등(2009)의 연구에서 여학생의 감사 성향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감사와 안녕감의 관계가 남녀 집단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감사발달을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Wu 등(2020)의 최근 연구에서 남녀 학생들의 감사발달 성장 궤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심리적 이점을 얻는 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학교현장 및 가정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과 행동특성을 확인하고 그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교육적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 및 행동특성을 파악하고 그 기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 혜택, 타인의 도움에 대해 감사함의 정서를 느끼고 그것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행동이 상대와의 긍

정적인 상호작용을 지각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하거나 학교생활만족을 낮게 보고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천적 방안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도움에 대해서 떠올려보고 그것들에 대해 행동적으로 표현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만족스럽고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을 구분하고 그 영향력을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감사 성향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만족과 같은 요인들과의 관련성은 살펴보았지만, 상대적으로 감사 표현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였다. 하지만 학교생활만족은 학생 개인이 가진 성격특성뿐만 아니라 인지적 특성, 행동특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향을 받을 수 있다(King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함께 살펴보았으며, 감사 성향과 표현 중 표현의 영향력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감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학급, 가정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교육 활동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생활만족과 감사 성향 및 표현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 모두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나타났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인간의 기본심리 욕구에 해당한다(Ryan & Deci, 2001).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교사와 친구로부터의 지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나타낸다(King et al., 2006).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학급 및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으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사 표현의 심리적 이점에 대해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을 할애하여 감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감사 표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미덕이나 예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이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더 만족스러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간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나 기제가 성별과 상관없이 비슷함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이 감사 성향이 높고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로부터 받는 관계적, 심리적 혜택은 남학생 여학생에 상관

없이 유사함을 뜻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을 위해서 성별과 관계없이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교육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사 성향, 감사 표현,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탐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들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깊이 있게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기 보고식 방식의 경우 사회적 평판 혹은 긍정적 자아상을 위해 응답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Paulhus & Reid, 1991). 즉, 감사 성향이나 감사 표현과 같은 질문들에 실제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거나 제3자 보고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높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임성택, 주동범, & 이금주, 2010),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감사 성향과 감사 표현이 학교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학교생활만족과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어떤 학생들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어떤 학생들에게서는 효과적이지 않은지 추가적인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권선중, 김교헌,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 (K-GQ-6) 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김명숙 (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민규, 김주환,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 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아슬 (2013). 감사표현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지혜, 이민규 (2012). 한국판 감사 척도의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1), 329-354.

박수원, 신종호, 이선영, 김여은, 이신형 (2014).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목표추구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학 분야 예비전문가와 전문가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8**(4), 711-733.

변상원, 이동귀 (2020). 감사태도와 감사 표현이 연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재활심리연구, 27**(1), 175-193.

손수경, 김효진, 홍세희 (2019). 다수 집단의 측정동일성 검정을 위한 임의효과 모형: 다층 확인적 요인분석 (ML CFA) 과 다층 요인혼합모형 (ML FMM) 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2), 185-218.

신종호, 연은모, 이유경, 정은경, 김명섭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

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이승연, 한미리. (2016) 노인의 감사 성향 및 감사 표현과 정신적 웰빙의 관계: 관계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3), 53-73.

임경희 (2009). 감사 연구의 최근 동향 및 과제. **상담평가연구, 2**(2), 47-60.

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스트레스, 공부압박감의 종단적 추이와 해석. **직업교육연구, 29**(1), 23-43.

장영애, 이영자 (2004).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정도, 대처행동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8**(3), 543-569.

정영숙, 김선미 (2016). 감사 성향, 배우자에 대한 감사 표현과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511-536.

추병완 (2015). 감사 연습의 도덕교육적 의의. **초등도덕교육**(47), 29-55.

추병완 (2016). 도덕적 정서로서의 감사 (gratitude) 함양을 위한 도덕과 교수 전략 설계 및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초등도덕교육**(52), 75-104.

한미리 (2018). 노년기 부부의 감사정서, 감사 표현, 지각된 파트너 반응성, 정신적 웰빙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허민희 (2013). 초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Abramson, L. Y., Seligman, M. E., & Teasdale, J. D. (1978). Learned helplessness in humans: critique and re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7*(1), 49.

Adl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1), 79-114.

Ainley, M., Corrigan, M., & Richardson, N. (2005). Students, tasks and emotions: Identifying the contribution of emotions to students' reading of popular culture and popular science texts.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433-447.

Algoe, S. B. (2012). Find, remind, and bind: The functions of gratitude in everyday relationship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6), 455-469.

Algoe, S. B., Dwyer, P. C., Younge, A., & Oveis, C. (2019). A new perspective on the social functions of emotions: Gratitude and the witnessing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Ames, C. (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3), 261.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Ash, C., & Huebner, E. S. (1998).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gfted middle-school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3*(4),

310.

Baker, J. A. (1998). The soci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urban, low-income, African-American stud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3*(1), 25.

Baker, J. A. (1999). Teacher-student interaction in urban at-risk classrooms: Differential behavior, relationship quality, and student satisfaction with school.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0*(1), 57-70.

Baker, J. A., Dilly, L. J., Aupperlee, J. L., & Patil, S. A. (2003). The developmental context of school satisfaction: Schools as psychologically healthy environm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206.

Baker, J. A., & Maupin, A. N. (2009). School satisfaction and children's positive school adjustment.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the schools*, 189-196.

Barrera, M. (1986). Distinctions between social support concepts, measures, and model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4), 413-445.

Barrera, M., Sandler, I. N., & Ramsay, T. B. (1981). Preliminary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support: Studies on college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9*(4), 435-447.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Bono, G., Froh, J. J., Disabato, D., Blalock, D., McKnight, P., & Bausert, S. (2019). Gratitude's role in adolescent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A 4-year longitudin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4*(2), 230-243.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press.

Byrne, B. M. (2010).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AMO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multivariate applications series). *New York: Taylor & Francis Group, 396*, 7384.

Caleon, I. S., Ilham, N. Q. B., Ong, C. L., & Tan, J. P.-L. (2019). Cascading effects of gratitude: A sequential mediation analysis of gratitud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chool resilience and school well-being. *The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28*(4), 303-312.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3), 464-504.

Chen, L. H., & Kee, Y. H. (2008). Gratitude and adolescent athletes'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2), 361-373.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Chopik, W. J., Newton, N. J., Ryan, L. H., Kashdan, T. B., & Jarden, A. J. (2019). Gratitude across the life span: Age differences and links to subjective well-be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4*(3), 292-302.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Cock, D., & Halvari, H. (1999). Relations among achievement motives, autonomy, performance in mathematics, and satisfaction of pupils in elementary school. *Psychological Reports, 84*(3), 983-997.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

Danielsen, A. G., Samdal, O., Hetland, J., & Wold, B. (2009).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students' perceived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2*(4), 303-320.

Demaray, M. K., & Malecki, C. K.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Demaray, M. K., Malecki, C. K., Davidson, L. M., Hodgson, K. K., & Rebus, P. J.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student adjustment: A longitudinal analysis. *Psychology in the Schools, 42*(7), 691-706.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Diener, E., & Fujita, F. (1995). Resources, personal strivings, and subjective well-being: a nomothetic and idiographic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26.

DuBois, D. L.,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52-64.

Duckworth, A. L., & Yeager, D. S. (2015). Measurement matters: Assessing personal qualities other than cognitive ability for educational purposes. *Educational Researcher, 44*(4), 237-251.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Experimental studies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2), 377-389.

Epstein, J. L., & McPartland, J. M. (1976).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the quality of school lif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3(1), 15-30.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00-319.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

Fredrickson, B. L. (2004). Gratitude, like other positive emotions, broadens and builds. *The psychology of gratitude, 145*, 166.

Froh, J. J., & Bono, G. (2008). The gratitude of youth.

Froh, J. J., Bono, G., & Emmons, R. (2010). Being grateful is beyond good manners: Gratitude and motivation to contribute to society among early adolescents. *Motivation and Emotion, 34*(2), 144-157.

Froh, J. J., Emmons, R. A., Card, N. A., Bono, G., & Wilson, J. A. (2011). Gratitude and the reduced costs of material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289-302.

Froh, J. J., Kashdan, T. B., Ozimkowski, K. M., & Miller, N. (2009). Who benefits the most from a gratitude interven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xamining positive affect as a moderato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5), 408-422.

Froh, J. J., Yurkewicz, C., & Kashdan, T. B. (2009).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Examining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32*(3), 633-650.

Garnefski, N., & Diekstra, R. F. (1996).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12), 1657-1664.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

Gordon, A. K., Musher-Eizenman, D. R., Holub, S. C., & Dalrymple, J. (2004). What are children thankful for? An archival analysis of gratitude before and after the attacks of September 11.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541-553.

Grant, A. M., & Gino, F. (2010). A little thanks goes a long way: Explaining why gratitude expressions motivat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6), 946.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Hong, S., Malik, M. L., & Lee, M.-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a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4), 636-654.

Howells, K. (2007). Practising gratitude to enhance teaching and learning. *Education Connect, 1*(8), 2-16.

Howells, K. (2014). An exploration of the role of gratitude in

enhancing teacher - student relationship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42*, 58-67.

Huebner, E. S. (1994).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scale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6*(2), 149.

Huebner, E. S., & Gilman, R. (2006). Students who like and dislike school.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2), 139-150.

Huebner, E. S., Gilman, R., Reschly, A. L., & Hall, R. (2009). Positive schools.

Huebner, E. S., & McCullough, G. (2000). Correlates of school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3*(5), 331-335.

Hui, E. K., & Sun, R. C. (2010). Chinese children's perceived school satisfaction: The role of contextual and intrapersonal factors. *Educational Psychology, 30*(2), 155-172.

Jiang, X., Huebner, E. S., & Siddall, J. (2013).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differential sources of school-related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school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3), 1073-1086.

Kashdan, T. B., Mishra, A., Breen, W. E., & Froh, J. J. (2009). Gender differences in gratitude: Examining appraisals, narratives, the willingness to express emotions, and changes in psychological needs. *Journal of personality, 77*(3), 691-730.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Kim, U., & Chun, M. B. (1994). Educational" success" of Asian Americans: An indigenous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King, A. L. D., Huebner, S., Suldo, S. M., & Valois, R. F. (2006). An ecological view of school satisfaction in adolescence: Linkag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3-4), 279-295.

King, R. B., & Datu, J. A. D. (2018). Grateful students are motivated, engaged, and successful in school: Cross-sectional, longitudinal, and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0*, 105-122.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Kong, D. T., & Belkin, L. Y. (2019). Because I want to share, not because I should: Prosocial implications of gratitude expression in repeated zero-sum resource allocation exchanges. *Motivation and Emotion, 43*(5), 824-843.

Kong, F., Ding, K., & Zhao, J. (2015). The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2), 477-489.

Kong, F., Zhao, J., You, X., & Xiang, Y. (2020). Gratitude and the

brain: Trait gratitude mediates the association between structural variations in the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life satisfaction. *Emotion, 20*(6), 917.

Lambert, N. M., Clark, M. S., Durtschi, J., Fincham, F. D., & Graham, S. M. (2010). Benefits of expressing gratitude: Expressing gratitude to a partner changes one's view of the relationship. *Psychological science, 21*(4), 574-580.

Lambert, N. M., & Fincham, F. D. (2011). Expressing gratitude to a partner leads to more relationship maintenance behavior. *Emotion, 11*(1), 52.

Lazarus, R. S., & Lazarus, B. N. (1994). *Passion and reason: Making sense of our emo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USA.

Legault, L., Green-Demers, I., & Pelletier, L. (2006). Why do high school students lack motivation in the classroom? Toward an understanding of academic amotivation and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3), 567.

Lewis, A. D., Huebner, E. S., Malone, P. S., & Valois, R. F. (2011). Life satisfaction and student engage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3), 249-262.

Little, T. D., Rhemtulla, M., Gibson, K., & Schoemann, A. M. (2013). Why the items versus parcels controversy needn't be one. *Psychological methods, 18*(3), 285.

Lyubomirsky, S., Dickerhoof, R., Boehm, J. K., & Sheldon, K. M. (2011). Becoming happier takes both a will and a proper way:

an experimental longitudinal intervention to boost well-being. *Emotion, 11*(2), 391.

Lyubomirsky, S., King, L., & Diener, E. (2005).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6), 803.

Ma, L. K., Tunney, R. J., & Ferguson, E. (2017). Does gratitude enhance prosocialit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3*(6), 601.

Malecki, C. K., & Demaray, M. K. (2002). Measuring perceived social support: Development of th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support scale (CASS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1), 1-18.

Martin, K., Huebner, E. S., & Valois, R. F. (2008). Does life satisfaction predict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adolesc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45*(8), 705-714.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

McCullough, M. E., Kilpatrick, S. D., Emmons, R. A., & Larson, D. B. (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49.

McCullough, M. E., Kimeldorf, M. B., & Cohen, A. D. (2008). An adaptation for altruism: The social causes, social effects, and social evolution of gratitud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4), 281-285.

McCullough, M. E., Tsang, J.-A., & Emmons, R. A. (2004). Gratitude in intermediate affective terrain: links of grateful moods to individual differences and daily emotional experi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295.

Nezlek, J. B., Krejtz, I., Rusanowska, M., & Holas, P. (2019). Within-person relationships among daily gratitude, well-being, stress, and positive experie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0*(3), 883-898.

Norris, F. H., & Kaniasty, K. (1996). Received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imes of stress: a test of the social support deterioration deterrence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3), 498.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Park, N., & Huebner, E. S. (2005). A cross-cultural study of the levels and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44-456.

Paulhus, D. L., & Reid, D. B. (1991). Enhancement and denial in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2), 307.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Vol. 1): Oxford University Press.

Ralph, J. A., & Mineka, S. (1998). Attributional style and self-esteem; The prediction of emotional distress following a midterm exa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2), 203.

Roeser, R. W., Midgley, C., & Urdan, T. C. (1996). Perceptions of the school psychological environment and early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functioning in school: The mediating role of goals and belong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3), 408.

Rosenberg, E. L. (1998). Levels of analysis and the organization of affect.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247-270.

Rosenfeld, L. B., Richman, J. M., & Bowen, G. L. (2000). Social support networks and school outcomes: The centrality of the teacher.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7*(3), 205-226.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Guilford press.

Saha, R., Huebner, E. S., Suldo, S. M., & Valois, R. F.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3*(2), 149-165.

Sanjuán, P., Pérez, A., Rueda, B., & Ruiz, Á. (2008). Interactive effects of attributional styles for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on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2), 187-190.

Santrock, J. W. (1987). *Adolescence: an introduction*: Wm C Brown Publishers.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

Suldo, S. M., Riley, K. N., & Shaffer, E. J. (2006). Academic correlat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7*(5), 567-582.

Sun, P., & Kong, F. (2013). Affective mediators of the influence of gratitude on life satisfaction in late adolescenc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4*(3), 1361-1369.

Tian, L., Chu, S., & Huebner, E. S. (2016). The chain of relationships among gratitude, prosocial behavior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satisfaction: The role of school affect. *Child*

Indicators Research, 9(2), 515-532.

Tian, L., Du, M., & Huebner, E. S. (2015). The effect of gratitude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in schools: The mediating role of prosocial behavi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3), 887-904.

Tsang, J.-A. (2006). BRIEF REPORT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ur: An experimental test of gratitude. *Cognition & Emotion, 20*(1), 138-148.

Tudge, J. R., Freitas, L. B., & O'Brien, L. T. (2015). The virtue of gratitude: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approach. *Human development, 58*(4-5), 281-300.

Verkuyten, M., & Thijs, J. (2002). School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performance, peer relations, ethnicity and gender. *Social indicators research, 59*(2), 203-228.

Wang, M.-T., & Holcombe, R. (2010). Adolescents' perceptions of school environment,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7*(3), 633-662.

Wang, M. T., & Eccles, J. S. (2012). Social support matters: Longitudi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ree dimensions of school engagement from middle to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3*(3), 877-895.

Watkins, P. C., Grimm, D. L., & Kolts, R. (2004). Counting your blessings: Positive memories among grateful persons. *Current*

Psychology, 23(1), 52-67.

Watkins, P. C., Woodward, K., Stone, T., & Kolts, R. L. (2003). Gratitude and happiness: Development of a measure of gratitude, and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1*(5), 431-451.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

Wenz-Gross, M., Siperstein, G. N., Untch, A. S., & Widaman, K. F.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78-89.

Williams, L. A., & Bartlett, M. Y. (2015). Warm thanks: Gratitude expression facilitates social affiliation in new relationships via perceived warmth. *Emotion, 15*(1), 1.

Wood, A. M., Froh, J. J., & Geraghty, A. W. (2010). Gratitude and well-being: A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90-905.

Wood, A. M., Joseph, S., & Maltby, J. (2009). Gratitude pred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bove the Big Five face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443-447.

Wood, A. M., Maltby, J., Gillett, R., Linley, P. A., & Joseph, S. (2008). The role of gratitud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depression: Two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854-871.

Wood, A. M., Maltby, J., Stewart, N., & Joseph, S. (2008). Conceptualizing gratitude and appreciation as a unitary personality trai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3), 621-632.

Wood, A. M., Maltby, J., Stewart, N., Linley, P. A., & Joseph, S. (2008). A social-cognitive model of trait and state levels of gratitude. *Emotion, 8*(2), 281.

Wu, R., Huebner, E. S., & Tian, L. (2020). Chinese children's heterogeneous gratitude trajectories: Relations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School Psychology*.

부록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설문 분석에 필요한 여러분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사항과, 자신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나 행동, 주변 사람들에 대한 생각,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답한 내용과 그 결과는 순수한 연구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응답 도중에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응답에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제시된 질문들은 정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학교 성적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설문지는 점수를 매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조근주 드림.

Ⅰ. 다음 항목들은 설문 결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_____ 초등학교
학년	① 5학년 _____ ② 6학년 _____
성별	① 남 _____ ② 여 _____

Ⅱ. 다음은 감사 성향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 분의 생각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만약 내가 감사함을 느꼈던 모든 일들을 적어본다면, 매우 길게 쓸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세상에는 감사할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 쉽게 고마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해 금방 고마움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감사 표현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 분의 행동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친구 (코로나로 인해 올해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겠다면 작년에 친구들을 자주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하여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친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에게 내가 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올해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겠다면 작년에 선생님을 자주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선생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것들에 대하여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도록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었을 때,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에게 내가 선생님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Ⅳ. 다음은 사회적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친구나 선생님을 자주 만나지 못 해 잘 모르겠다면 작년을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 생각이나 말을 친구들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해 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친구들 중에 나와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지 않게 본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선생님은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Ⅴ. 다음은 학교생활 만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평소 여러분이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을 잘 나타내어 주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학교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으므로 작년을 생각하고 응답해도 좋습니다.)

문 항	전혀 아니다	가끔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나의 학교 생활은 내가 꿈꾸는 학교 생활과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학교 생활은 아주 좋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나의 학교 생활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나는 내가 원했던 중요한 일을 이루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다시 돌아간다 해도, 학교에 입학하는 결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n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ed by Social Support

Keunjoo J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t was also intended to investigate that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variables vary depending on gender groups.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550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s in Seoul,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ocial support fully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bootstrapping analysis, both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affect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In addition, comparing the size of the influence of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on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showed that gratitude expression had a somewhat higher influence than dispositional gratitude.

Additionally, multi-group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ifference in the path coefficients in the two group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a latent means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means of latent variables in two group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indicating that the latent means of female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and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l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satisfaction in school life and explored specific mechanisms. Specifically, it revealed that the

dispositional gratitude and gratitude expression can affect school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support, and that the relationships of variables can be applied equally regardless of gender.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educational interventions to promote appreciation and gratitude expression in order to enhance students' social suppor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Key Words: dispositional gratitude, gratitude expression, social support, school life satisfaction.

Student Number: 2019-24876